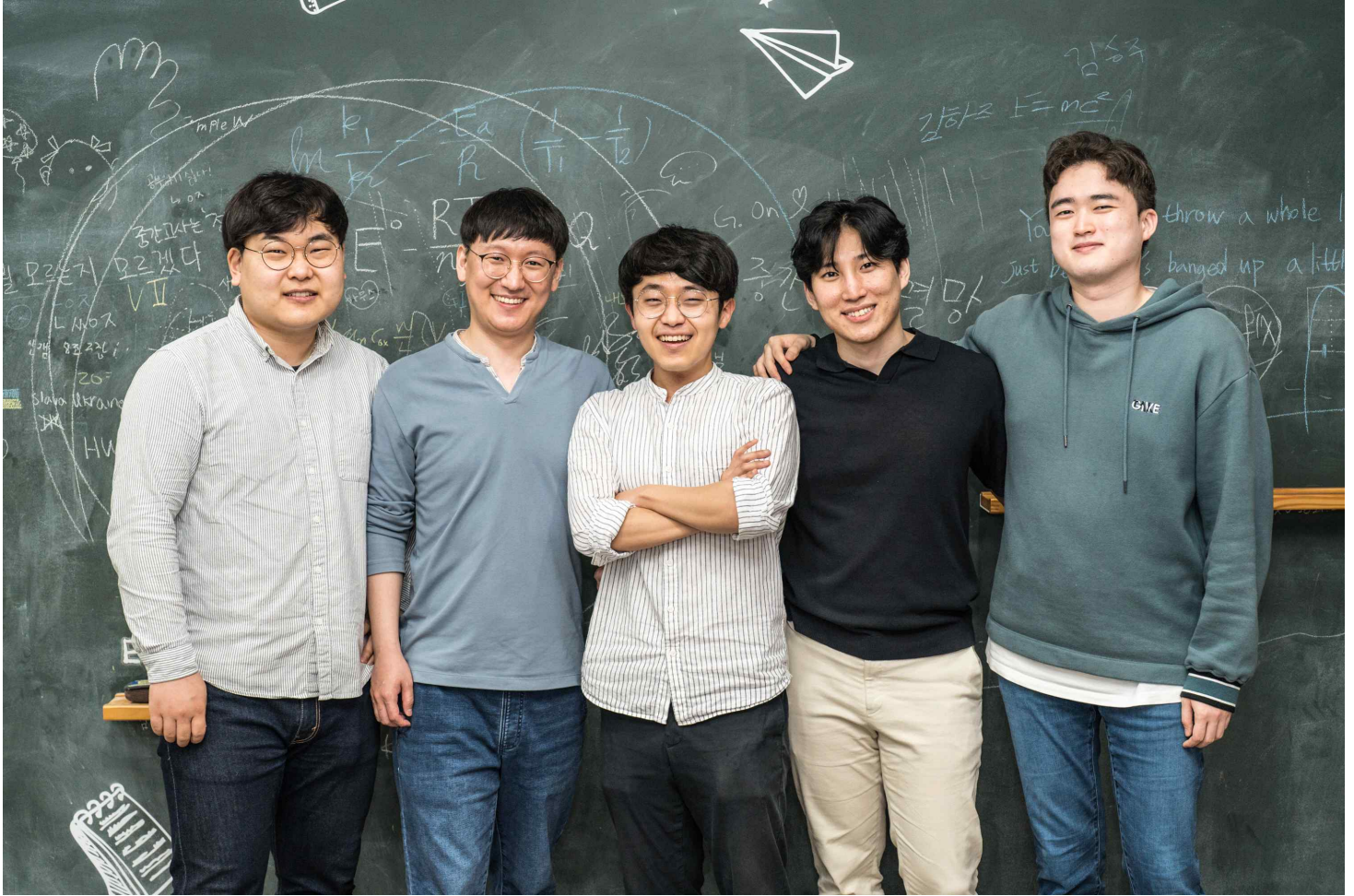


박사과정 공대생들의 감질나는 '독서 모임' 이야기, <공감독서> 출간

- 지스트 학사과정 선후배 5명, 바쁜 실험실 생활에도 5년여간 함께 책 읽어
- 장자·자본주의·영화·사랑 등 주제 다양...독서 모임과 책에 대한 이야기 담아



▲ (왼쪽부터) 강창묵, 조민상, 오왕석, 송훈, 신정욱 저자

며칠 동안 공들인 실험을 망치고 나서 느끼는 허탈감을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잠시나마 잊어버릴 수 있었다. 가벼워서 즐거웠지만 진지해서 유익했던, 우리 모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 <공감독서>, p.6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함께 보낸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독서 모임'을 통해 나눈 우리 사회와 인생에 대한 생각과 책 읽기에 대한 소회를 엮은 책이 발간됐다.

지스트 출판사인 GIST PRESS에서 최근 발간한 <공감독서 - 공대 대학원생들의 감질나는 독서 모임 이야기>(이하 <공감독서>)는 지스트에서 박사과정을 함께 지낸 5인의 이공계 인재들이 쓴 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여 동안 진행한 독서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들은 2010년 문을 연 **지스트 학사과정**에 1·2기로 입학해 서로 다른 전공으로 지스트 대학원에 진학한 선후배 사이로, “전자책의 매끈함보다는 종이책을 넘길 때의 마찰감을 좋아”하는 **오왕석 박사**(2021년 신소재공학부 졸업, 現 박사후 연구원), “대학 시절 의식과 무의식, 선과 악, 정의(正義)라는 주제에 심취했던” **조민상 박사**(2022년 물리·광학과 졸업, 現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매주 수요일을 영화 보는 날”로 정할 정도로 영화를 사랑하는 물리학도 **송훈 학생** (물리·광학과 박사과정생), “화학 합성 연구를 하며 전날 읽었던 소설을 떠올리곤 하는” **강창묵 학생**(화학과 박사과정생), “수학과 과학에 갇힌 과학고생에서 철학 수업을 청강하는 융합 인재로 거듭난” **신정욱 학생**(물리·광학과 박사과정생)이다.

언뜻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 안에는 대학생 때 느꼈던 그 뜨거움이 있었다. 각자의 연구주제만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논하고, 영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고, 이 시대의 대학의 의미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현대사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했다. 그렇게 뜨거운 대학원 생활을 함께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 <공감독서>, p.168

저자들이 졸업한 **지스트 학사과정**은 국내 최초로 리버럴 아트 칼리지(Liberal Art College)를 표방하며,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인문융합 과학기술 교육**(Liberal arts education for scientists and engineers)’이라는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도입, 국내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독서>에는 저자들이 학사과정에서 경험한 인문융합 과학기술 교육 이후 전문적인 이공계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오랜 시간 독서를 습관화하고 모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시행착오,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저자들은 “지스트 후배들, 더 나아가 한국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과 독서 모임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싶다”며 책 1~3장을 통해 독서 모임을 시작한 배경, 독서 모임의 시즌 1~3을 거치며 독서 모임을 진화시킨 방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책 3장 <독서 모임의 꽃, 발제문 쓰기>에서는 **각 멤버가 작성한 실제 발제문들을 사례로 제시**하고 각 발제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도 가감 없이 담아, 마치 독서 모임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으로 **독서 모임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대 대학원생들의
감칠나는
독서 모임 이야기

공감 독서



▲ [책 표지] GIST PRESS는 지스트 학사과정 1·2기생 출신 대학원생들의 독서 모임 이야기를 모아 <공감독서>를 출간했다.

또한, 책 5장 <독서 모임이 남긴 흔적들 다시 쓰기>에는 기존 발제문을 발전시켜 저자들이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장자(莊子)의 <장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진중권의 <진중권의 이매진>, 폴라 스테판의 <경제학은 어떻게 과학을 움직이는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등 철학·예술·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 13권에 대한 저자들의 생각을 정리했다.

...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 우리도 여러모로 성장했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접하면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내 생각과 경험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잠시 멈춰 서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 <공감독서>, p.88

저자들은 "우리 독서 모임의 뿌리는 대학생 시절 들었던 인문 교양 강의와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라며 "바쁜 연구실 생활 때문에 독서 모임이 부담될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충만함을 느끼고 혼자서는 보지 못한 것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발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공감독서>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를 망설였거나 이제 막 모임을 시작하려는 후배, 동료들에게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